 <b>인천광역시</b>		<b>보 도 자 료</b>		<b>재외동포청 최적지</b> <b>인천</b>	
		배포일자	2023년 4월 5일(수) 총 3매		
담당 부서	수산물 기술 지원센터	담 당 자	• 수산물안전관리담당 조병택 ☎458-7451 • 담당자 윤재호 ☎458-7455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대비해 방사성 물질 측정 강화**  
**-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조사 모니터링 및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강화 -**

인천시가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대비해 방사능물질 측정을 강화하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비해 수산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그동안 축적된 약 125만 톤의 원전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해 해양으로 방류한다는 입장으로 작년 하반기 해양 방류 시설 착공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

인천시 수산물기술지원센터에서는 원전 오염수 방류 전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데이터를 21년 95건, 22년 172건 조사해 축적했으며, 올해는 200건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조사량 확대 및 신속한 분석을 위해 방사능 정밀분석장비를 당초 1대에서 2대로 확충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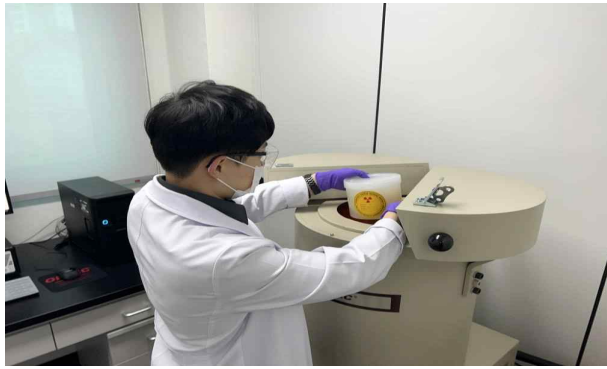
또한 센터 홈페이지에 매월 1회 공개하던 방사능조사 결과를 건별로 공개해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을 대상으로 수산물 안전성 조사 참관 프로그램을 운영해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에 대한 정부와의 특별 합동 단속 등 현장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수산물의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율민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은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임박한 만큼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하는 수산물의 명확한 원산지 표시까지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 <참고> 보도자료 관련사진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조사 시료수거	수산물 방사능조사 시료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조사 분석시험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